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남 희 선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죽음 수용 척도 설문지를 실시해 죽음 수용 점수 상, 하 15%에 해당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죽음 수용 고집단(50명)과 죽음 수용 저집단(48명)을 구성하였다. 죽음 공포가 두 집단의 삶의 의미 지각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본 실험에서는 두 집단을 죽음 공포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예제 이 과제를 실시한 후 삶의 의미 척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죽음 수용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 지각 및 의미 추구를 더 많이 하였다. 삶의 의미 지각의 하위 요인인 현재 의미 지각에서는 죽음 수용 수준이 높은 집단은 죽음 공포를 경험한 후에 현재 의미 지각을 더 많이 하였으나, 죽음 수용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죽음 공포 경험 여부에 따라 현재 의미 지각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죽음 공포, 죽음 수용, 삶의 의미 지각, 현재 의미 지각

* 본 논문은 교신저자 지도 하에 제 1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Tel: 02-2164-4276, E-mail: yhlee@catholic.ac.kr

인간 존재(Being)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인간 동기의 근본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한미정, 최정윤, 1999; Reker, 1997; Frankl 1967). 그러나 인간 존재는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불안이란 유한한 존재가 비존재(Non-Being)의 위협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한미정, 최정윤, 1999). 죽음 불안(death anxiety)은 죽은 상태를 예견함에 따라 야기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며(Tomer, 1994), 죽음과 관계된 여러 가지 측면을 예견하거나 심사숙고하는데 기반을 둔, 불쾌함과 근심걱정의 주관적 느낌을 포함하는 정서적 반응이다(Hoelster, 1979).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존재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직, 간접적인 사건을 계기로 죽음이 예견되면 죽음이 의식화되는 순간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이홍표, 이홍석, 고효진, 김교현, 2005). 이런 죽음 불안은 개인에게 위협적인 면을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죽음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Wong, 1994). 이에, 사람은 죽음 불안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죽음 불안을 해결하는 문제는 삶의 의미와 깊은 관계가 있다(한미정, 최정윤, 1999).

한편, Butler(1963)는 죽음 불안과 궁극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으로 인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죽음 수용의 개념을 제안하며 죽음 수용을 죽음 불안과 함께 고려해야 할 변인으로 보았다. Wong, Recker 및 Gesser(1994)는 죽음 불안이 매우 큰 사람도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인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완전히 죽음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

면서, 결국 죽음 수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죽음 불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죽음 불안과 죽음 수용은 삶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죽음 불안과 죽음 수용이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지', '개인이 삶의 통합을 이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실존주의 관점을 지지했다. 이처럼 죽음 불안과 죽음 수용, 삶의 의미 간에 관계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그러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며 필수적인 질문이면서도 존재의 의미를 문제 삼는 부분에서야 말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Frankle, 이현수 역, 1983). 이를 고려할 때 죽음 수용과 죽음 불안, 삶의 의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삶의 의미와 죽음 불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나이 45세의 호스피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의미와 죽음 불안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죽음 불안이 낮게 나왔다(한미정, 최정윤, 1999 재인용; Amenta, 1984). 또한, 높은 수준의 죽음 불안을 갖는 개인은 낮은 수준의 죽음 불안을 갖는 개인보다 통계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더 많은 괴로움과 더 적은 인생만족을 경험했으며 죽음 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한미정, 최정윤, 1999), 노년의 생의 만족도를 떨어뜨렸다(Tate, 1982).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죽음 불안과 정신건강은 부적 상관을 보여 왔다.

한편, 죽음 불안과 죽음 공포(death fear)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혼용되어 왔는데, Feital과 Branscomb(1973)은 죽음

불안을 일반적이며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한 반면, 죽음 공포는 의식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정의하며 두 개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즉, 죽음 공포는 의식적이고 구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식적인 수준에서 언어적으로 보고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지현, 민경환, 2005 재인용; Wong, Reker, & Gesser, 1994). 이에 주로 죽음 공포는 자신에 대한 죽음을 에세이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유도되어왔다. 더불어 자신에 대한 죽음을 에세이로 작성하면 친사회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등, 죽음 공포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막연한 죽음 불안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 죽음 공포에 노출된 경우에는 죽음 공포의 긍정적 측면이 나타났다는 점이다(Lind & Tyler, 1988; Lemer, 1980, van den Bos & Miedema, 2000).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죽음 공포는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에서 다루지고 있다. 공포 관리 이론에서는 주로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에세이를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했으며 이 같은 죽음 공포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죽음 공포를 극복하는지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 소속감을 통해 죽음 공포를 극복하고자 했으며(박지선, 최인철, 2002), 대체로 소속된 사회에서 용인된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의 형식을 통해 죽음 불안을 유도했던 것과는 달리, 공포 관리 이론에서 사용한 것처럼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면 그 과정에

서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죽음 공포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지지됐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한 후에는 공정성을 더 추구하고자한 것으로 나타나 죽음 공포의 긍정적 측면이 나타났다(박지선, 최인철, 2002).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죽음 불안과 죽음 공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었는데, 일반적이고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막연한 죽음 불안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죽음 불안과 삶의 의미 간의 부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은 반면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죽음 공포를 유도한 연구에서는 죽음 공포가 참가자 스스로 공정성을 추구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죽음 공포를 통해 강화된 사회적인 역할 강화는 ‘사회의 기여’ 및 ‘사회적 관심과 참여’로 박선영, 권석만(2012)이 연구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만족도는 Debats, Drost와 Hansen(1995)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사회 속에서의 역할 강화나 삶의 만족도는 모두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사회 속에서의 역할 강화 및 이를 통해 삶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삶이 의미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죽음 공포는 삶이 의미 있다고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이 죽음 공포 조건에서 더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모습

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죽음 수용에 대해 알아보면, Wong, Recker 및 Gesser(1994)는 죽음 불안과 죽음 수용을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특히, 죽음 불안과 죽음 수용이 모두 삶의 의미 추구하고 관련이 있어 삶의 의미 추구를 논의할 때는 죽음 수용과 죽음 불안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죽음 수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Klug와 Sinha(1987)는 죽음 수용을 ‘개인이 죽음에 대한 자각에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신중히, 지적으로 받아들이며 결과에 정적 정서가 동화된 것’으로 정의하며 죽음 수용을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지적 자각’과 ‘인지적 자각에 대한 정적 정서의 반응’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고 보았고, Wong등(1994)은 ‘정상적이고 기능적인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는데 대한 심리적 준비와 관계된 것’으로 ‘죽음(final exit)에 대한 심리적 준비’로 정의하였다.

죽음 수용은 접근적 수용(acceptance),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회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의 총 3개의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접근적 수용은 행복한 사후 세계와 관련된 신념을 믿는 것으로 환생을 믿거나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덜 불안해하고 죽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Wong, 1994). 회피적 수용은 삶이 고통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죽음이 환영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중립적 수용은 죽음을 삶의 필수적 요소로 보는 입장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포함한다는 관점이다(김지현, 민경환,

2005; Armstrong, 1987; Kübler-Ross, 1969; Saunders & Baines, 1983). Wong은 중립적 수용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봤으며, 죽음에 대한 가장 성숙한 태도로 보았다.

죽음 수용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죽음 수용은 의미 있게 살고자하는 심리적 자원과 관계가 있으며(강경아, 이경순, 2010; Becker, 1973), 죽음 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삶을 의미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tler, 1975; Georgemiller & Maloney, 1984; Wong & Watt, 1991). 또한 삶을 의미 있게 여기고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죽음 수용 수준이 높았다(Wong et al., 1994). 죽음 수용 연구에서는 죽음 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의미 지각이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차이를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삶의 의미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죽음 수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삶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삶의 의미는 삶에서의 일관성(Battista & Almond, 1973; Recker & Wong, 1988), 목표 지향성 또는 목적성(Ryff & Singer, 1998), 삶의 존재론적 중요성(Crumbaugh & Maholick, 1964), 행동을 하는 의도 또는 행동의 이유(Mascaro, Rosen, & Morey 2004)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의미란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출해야만 하며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추동인

‘의미에의 의지’를 갖고 있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다(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재인용; Frankl, 1963).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삶의 의미 부족은 우울과 불안(Debat, van der Lubb, & Wezeman, 1993), 자살사고, 약물남용(Hallow, Newcomb, & Bentler, 1986), 자신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관련이 있고 삶의 의미의 증만은 웰빙, 삶의 만족, 행복, 높은 자기 존중감,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한 태도, 적극적인 참여 및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재인용; Debats, Drost, & Hansen, 1995).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는 삶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인 ‘현재 의미 지각’과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을 의미하는 ‘의미의 추구’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두 변인이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제시했다. 연구를 통해서도, 의미 추구하고 현재 의미 지각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 의미 추구는 신경증 성향, 우울, 부정적 정서와 작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현재 의미 지각은 신경증 성향,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삶의 만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의미 추구가 신경증 성향, 우울, 부정적 정서와 작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데 대해, Steger 등(2004)은 내적인 의미 추구가 좌절되었을 때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종합해 보면, 사람은 죽음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죽음 공포는 죽음 수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이 모두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고 있

는데(Wong et al., 1994),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죽음 수용은 그 정도에 따라 삶의 의미를 달리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지만 죽음에 수용적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죽음 수용의 중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죽음수용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성해 실험 집단은 죽음 공포에 노출시켜 죽음 공포를 유도(통제집단은 죽음 공포에 노출시키지 않음)한 후, 삶의 의미를 측정해서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죽음 수용의 중재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은 죽음 대처 효능감이 높아(김지현, 민경환, 2005), 죽음 공포 조건에서 죽음 공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는 반면, 죽음에 수용적이지 않은 사람은 죽음 대처 효능감이 낮아, 죽음 공포 조건에서 죽음 공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죽음 공포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 지각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 ① 죽음 수용 고집단은 죽음 공포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더 추구할 것이다.
- ② 죽음 수용 저집단은 죽음 공포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 지각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소재 4년제 사립 대학교(가톨릭재단)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42명 중, 죽음 수용 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 15%(죽음 수용 고집단: 평균 4.71이상, 죽음 수용 저집단: 평균 2.67 이하)에 해당하는 98명을 대상으로 했다. 참가자들은 실험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에 응한 98명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7명(17.3%), 여학생이 81명(82.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9세(표준편차: 3.61)였다.

실험조작

죽음 공포 유도 에세이

죽음 공포 유도 에세이는 실험집단에만 실시됐으며 선행 연구에서 죽음 공포를 유도하는 에세이를 참고해 본 연구에서 이용했다(박지선, 최인철, 2002; Arndt et al., 1999;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Rosenblatt, Veeder, Kirkland, & Lyon, 1990 등). 지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적어 주십시오.”

생활 에세이

생활 에세이는 통제집단에만 실시됐으며 선행 연구에서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이용됐던 에세이를 참고해 본 연구에서 이용했다(Simon, 1998). 지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감명 깊게 본 TV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적어주십시오.”

사진 과제

본 연구에 사용된 사진은 화장대 앞에 앉은 여자나 해골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으로, Gailliot(2006)의 연구에서 죽음 사고의 정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처음 사용됐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에 죽음 사고가 유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에세이를 작성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참가자들은 사진을 보고 단어 5개를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게 했다. 이후 단어들 중 죽음 관련 단어를 썼는지 여부에 따라 죽음 공포의 유도 여부를 판단했고 실험집단에서 죽음 관련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최종 분석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이용했다. 죽음 관련 단어는 0개에서 5개까지 작성하였으며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죽음 관련 단어 선정은 임상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4명의 합의 하에 결정하였으며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엔 과반수의 대학원생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노장사상 설문지

박지선, 최인철(2002)의 연구에서 한국의 노장사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죽음 공포에 노출된 참가자들의 죽음 불안으로 인한 부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했다. 노장 사상 설문지는 노장 사상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5점 리커트 척도의 10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든 실험을 마친 뒤 노장 사상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장사상에 노출되도록 했다.

측정도구

인구학적 변인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종교의 중요성, 죽음 목격 경험, 지인의 죽음 경험, 성별, 나이에 대한 질문으로 이뤄져있으며 김지현, 민경환(2005)의 연구를 참고했다. 더불어 본 연구가 죽음 연구라는 특성상, 실질적인 죽음을 경험한 참가자들에게 정서적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돼 직접적인 죽음 목격 경험이나 1년 내 발생한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참가자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종교의 중요성, 죽음 목격 경험, 지인의 죽음 경험, 성별, 나이에 대한 질문을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에 이어서 실시함으로써 지연 과제(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PANAS: 약 4-5분 지연)로도 활용했다.

죽음 수용 척도(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Wong 등(1994)이 개발한 5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죽음 태도 척도에서 죽음 공포와 죽음 회피 차원을 제외한, 세 개의 죽음 수용 차원 즉, 접근적 수용(10문항), 회피적 수용(5문항), 중립적 수용(5문항)의 총 20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돼 있으며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Wong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접근적 수용 .97, 중립적 수용 .65, 회피적 수용 .84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4주)는 접근적 수용 .95, 중립적 수용 .64, 회피적 수용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운영(2007)이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이용했으며 본 연구의 죽음 수용 내적 합치도는 .89, 접근적 수용 .97, 중립적 수용 .75, 회피적 수용 .95였다. 한편, 세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해보면, Wong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중립적 수용의 내적 합치도가 회피적 수용이나 접근적 수용의 내적 합치도에 일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립적 수용의 내적 합치도가 접근적 수용 및 회피적 수용에 비해 낮은 것은 접근적 수용과 회피적 수용이 모두 죽음을 환영하는 관점인 반면, 중립적 수용은 죽음을 삶의 불가피한 종결로 생각하고 죽음을 환영하거나 회피하지도 않는 입장으로, 중립적 수용의 문항이 접근적 수용과 회피적 수용의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우울척도는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가 개발한 우울 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4점 척도로,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63점 사이에 분포하게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 죽음 사고를 유발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BDI가 높은 참가자를 제외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PANAS는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이 개발한 것으로, 특정 순간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문항을 이용했다. 긍정적 정서 10개와 부정적 정서 10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정서에 대하여 참가자가 현재 이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전적으로 그렇다)로 표기하게 했다. PANAS의 내적 합치도는 .84(긍정적 정서: .84, 부정적 정서 .87)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한편, PANAS는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됐다. 첫째는 죽음 공포가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연시간(delay task)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Vess, Routledge, Landau, & Arndt, 2009)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도 실험 집단에 유발한 죽음 공포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했으며, 두 번째는 삶의 의미 지각에 정서가 미치는 정도를 배제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삶의 의미 척도(MLQ)는 Steger, Frazier, Oishi, 및 Kaler(2004)가 개발한 것으로, 현재 의미 지각과 의미 추구라는 두 하위 요인으로 이뤄져 있다. 각 하위척도 당 5 문항씩 전체 10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지각이나 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원두리, 김교

현, 권선중(2005)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때 내적합치도는 .90(현재 의미 지각: .88, 의미 추구: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두리 등(2005)이 번안, 타당화한 문항을 이용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90(현재 의미 지각: .92, 의미 추구: .88)이었다.

절차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죽음 수용 척도와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DI),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실시했다. 또한, 죽음 수용 정도의 고, 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참가자로 선별하기 위해 죽음 수용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BDI와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는 우울점수가 높거나 최근 가까운 지인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구 통계학적 설문지에는 죽음 수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인 종교의 중요성,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죽음 목격경험, 지인의 죽음 경험, 성별, 나이가 포함 되었다(김지현, 민경환, 2005). 자기보고식 설문지 회수 후,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하거나 무작위로 응답한 것으로 보이거나 개인 정보를 적지 않은 21명의 자료를 제외한 421부(죽음 수용 평균: 3.56, 표준편차: 0.97)에서 죽음 수용 고·저집단을 선별했다. 죽음 수용 고·저집단은 죽음 수용 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 15%에 해당하는 136명(죽음 수용 고집단: 70명, 죽음 수용 저집단 66명)으로 구성했다. 이중 BDI 점수가 10점 이상인 2명과 BDI 항목 중 자살 사고를 빈번하게 한다고 응답한 3명, 직접적인 죽음 목격 경험이 있거나 1년 내 발생한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5명,

BDI 점수가 10점 이상이고 1년 내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1명을 제외한 125명에게 전화나 문자로 실험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자의 요청에 전화나 문자로 실험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 101명 중 98명(죽음 수용 고집단: 50명, 죽음 수용 저집단: 48명)이 별도의 실험실을 방문해 실험에 참가했으며 남학생이 17명, 여학생이 81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들어온 순서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됐는데,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짝짓기하여 배치했다. 즉, 35세 이상의 여성 참가자 4명(2명: 죽음 수용 고집단, 2명: 죽음 수용 저집단)은 각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배치됐으며 남학생 17명은 연령대가 20대로 동일하였으므로 9명은 실험집단과 8명은 통제집단에 배치되었다(죽음 수용 고집단: 실험집단 남학생 비율(6%), 통제집단 남학생 비율(6%), 죽음 수용 저집단: 실험집단 남학생 비율(12%), 통제집단 남학생 비율(10%)). 그 외 여학생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또한, 실험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의 경우 실험에 들어가기 전, 죽음 사고에 대한 외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죽음 사고에 대한 외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죽음 공포를 유발하는 에세이를 작성했으며 실험 집단에 속한 49명이 모두 사진 과제에서 죽음 관련 단어를 적어, 49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됐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실험 집단은 죽음 공포 유도 에세이를 작성한 후 지연 과제로 PANAS와 인구학적 변인관련 질문에 응답했으며 이후 사진 과제를 작성했다. 사진과제에서 5개의 단어를 쓴 뒤 삶의 의미 설문지와 노장 사상 설문지를 작성했다.

통제 집단은 죽음 관련 에세이 대신 감명

깊게 본 TV나 친구와의 만남,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중심으로 에세이를 작성했으며 이후 PANAS와 인구학적 변인 관련 질문, 사진과제에서 5개의 단어를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 설문지를 작성했다.

한편, 에세이 작성 시간은 총 5분이었으며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입실한 후에 순서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참가자 중에는 5분동안 에세이를 작성하지 못한 통제 집단의 참가자가 3명이 있었으며 5분을 넘긴 실험집단의 참가자가 1명이 있었다. 이에, 5분의 시간을 못 채운 참가자에게는 에세이 외 오늘 있었던 일을 더 적어보도록 유도해서 5분동안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실험집단의 참가자는 죽음 공포 조건에 충분히 노출됐다고 판단해 이후 실험절차를 진행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참가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죽음 수용 수준과 참가자 정서와 BDI,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했다.

둘째,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셋째, 실험 집단에 죽음 공포가 유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과제에서 제시된 죽음관련 단어를 쓰도록 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t 검증을 실시해 두 집단간 죽음 공포 유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죽음 수용 고집단(죽음 공포 조건, 통제 조건)과 죽음 수용 저집단(죽음 공포 조건, 통제 조건)의 네 집단에서 죽음 수용 외,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 및 BDI,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기술통계 및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다섯째, 죽음공포 조작실험에서 죽음 공포와 삶의 의미 지각 간에 죽음 수용이 중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 변량 분석과 다변량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죽음 수용과 PANAS를 이용해 측정한 참가자 정서, BDI, 종교의 중요성,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죽음 목격 경험, 지인의 죽음 경험, 성

별, 나이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표 1에 따르면, 죽음 수용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죽음 수용 점수와 죽음 수용의 각 하위 변인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와 BDI, 건강상태, 경제수준, 죽음 목격 경험, 지인의 죽음 경험, 성별, 나이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종교의 중요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두 집단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죽음 공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와 BDI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났으므로 이후 삶의 의미 지각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해 보았다.

표 1. 죽음 수용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체 (N=98)	죽음수용 고집단 (N=50)	죽음 수용 저집단 (N=48)
죽음 수용	3.88(1.50)	5.28(0.42)	2.43(0.49) ^{***}
- 접근 수용	3.81(2.04)	5.66(0.74)	1.87(0.73) ^{***}
- 회피 수용	3.27(1.98)	4.94(1.14)	1.52(0.80) ^{***}
- 중립 수용	5.43(1.10)	5.90(0.65)	4.94(1.25) ^{***}
정서	2.37(0.42)	2.40(0.38)	2.33(0.44)
BDI	0.39(0.30)	0.39(0.34)	0.38(0.25)
종교의 중요성	3.01(0.15)	3.84(1.13)	2.15(1.30) ^{***}
건강 상태	3.45(0.09)	3.60(1.01)	3.29(0.84)
경제 수준	3.05(0.08)	3.12(0.77)	2.98(0.81)
죽음 목격 경험	1.39(0.05)	1.38(0.49)	1.40(0.64)
지인의 죽음 경험	1.87(0.03)	1.86(0.35)	1.88(0.33)
성별	1.82(0.39)	1.82(0.38)	1.81(0.39)
나이	21.96(0.36)	22.10(3.55)	21.81(3.29)

^{***} $p < .001$, ^{**} $p < .01$, ^{*} $p < .05$.

죽음 공포와 삶의 의미 지각 간에 죽음 수용의 중재 효과

사진과제를 통해 실험집단에 죽음 공포가 유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두 집단 간 차이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죽음 공포 외 다른 조건 즉, BDI와 정서, 종교의 중요성,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성별, 나이의 네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또한, 죽음 수용 집단의 죽음 공포 처치에 따른 삶의 의미 점수 평균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이후 죽음 공포와 삶의 의미 지각 간에 죽음 수용이 중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죽음 수용 고, 저와 죽음 공포 유, 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삶의 의미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실시했으며 다변량 분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통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사진 과제에서 죽음 관련 단어를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적어, 실험 집단에 죽음 공포가

유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을 보면, 참가자들은 주로 해골, 죽음 등의 죽음 관련 단어와 두렵다, 무섭다 등의 정서 관련 단어, 여자, 화장 등의 중립적인 단어를 기재하였다.

죽음 공포 외, 다른 변인이 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DI와 정서, 종교의 중요성,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성별, 나이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후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이 변인들의 네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종교의 중요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변인에서는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표 1과 마찬가지로, 죽음 수용 저집단과 고집단 간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죽음 수용 고집단은 저집단에 비해 종교에 대한 중요성을 더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3, 94)=16.27, p<.001$.

표 4에는 죽음 수용 고집단과 저집단의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지각하는 정도를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죽음 수용 고집단이 죽음 수용 저집단에 비해 실험 조건이나 통제 조건에서 모두 삶의 의미와 의미추구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미 지각에서는 죽음 수용 고집단의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간에 평균 점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표 2. 해골이나 여성으로 지각될 수 있는 사진과제를 통해 알아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관련 단어 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죽음관련 단어 수	1.20(0.91)	0.82(0.66)*

* $p<.05$.

표 3. 집단 간 인구 통계학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조건	BDI	정서	종교	건강	경제	성별	나이
죽음	죽음공포조건(N=25)	0.35(0.40)	2.48(0.41)	4.04(0.97)	3.64(1.15)	3.00(0.76)	1.92(0.27)	22.64(4.68)
수용고	통제 조건(N=25)	0.43(0.28)	2.32(0.34)	3.64(1.25)	3.56(0.87)	3.24(0.77)	1.72(0.45)	21.56(1.80)
죽음	죽음공포조건(N=24)	0.37(0.25)	2.31(0.43)	2.25(1.42)	3.21(0.88)	2.71(0.80)	1.79(0.41)	21.04(2.03)
수용저	통제 조건(N=24)	0.37(0.26)	2.36(0.46)	2.04(1.19)	3.38(0.82)	3.25(0.73)	1.83(0.38)	22.58(4.09)

표 4. 죽음 수용 집단의 죽음 공포 처치에 따른 삶의 의미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조건	삶의 의미	현재 의미 지각	의미 추구
죽음 수용 고	죽음 공포 조건(N=25)	5.67(0.78)	5.63(1.11)	5.98(0.72)
	통제 조건(N=25)	5.22(1.18)	4.62(1.57)	5.82(1.03)
죽음 수용 저	죽음 공포 조건(N=24)	4.88(1.01)	4.33(1.57)	5.43(1.04)
	통제 조건(N=24)	5.04(1.12)	4.83(1.34)	5.26(1.11)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죽음 수용이 중재하는지 확인하고자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변량분석 결과, 삶의 의미 지각에서 죽음 수용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F(1, 94)=5.37, p<.05$, 죽음 공포의 주효과 및 죽음 수용과 죽음 공포의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삶의 의미지각의 하위유형인 현재 의미 지각에서는 죽음 수용과 죽음 공포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94)=5.16, p<.05$. 각 죽음 공포 조건과 통제 조건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했다. 우선 죽음 수용 고 집단을 살펴보았을 때, 죽음 공포 조건과 통제 조건 간에 유의한 경향성이 있었으나, $t=-1.93, p<.10$, 죽음 수용 저집단은 죽음 공포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1.31, ns$.

더 나아가 삶의 의미 지각의 두 변인인 현재 의미 지각과 의미 추구를 다변량분석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죽음 수용 고, 저집단의 Wilks의 람다값이 $F=4.868, p<.05$ 로 유의미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에서의 Wilks의 람다값은 $F=2.538, p<.10$ 으로 유의미한 경향이 있음

표 5.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이 현재 삶의 의미와 의미 추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종속변인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실험집단, 통제집단	현재 삶의 의미	1	.760	.391
	의미 추구	1	.339	.346
죽음 수용 고, 저집단	현재 삶의 의미	1	3.766	1.940
	의미 추구	1	9.566	9.764**
실험, 통제X죽음수용 고저	현재 삶의 의미	1	7.896	4.067*
	의미 추구	1	.029	.029
오차	현재 삶의 의미	94	1.942	
	의미 추구	94	.980	
합계	현재 삶의 의미	98		
	의미 추구	98		

* $p<.05$, ** $p<.01$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표 5를 통해, 죽음 수용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죽음 수용 고집단은 통제 조건보다 죽음 공포 조건에서 삶이 더 의미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종교의 중요성에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므로 종교의 중요성을 배제하기 위해 종교의 중요성을 공변량으로 하고 추가분석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종교의 중요성을 공변량으로 했을 때, 현재 의미 지각과 의미추구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Wilks의 람다값 $F=0.329, ns$.

따라서 ① 죽음 수용 고집단은 통제 조건보다 죽음 공포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더 추구할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됐으며 ② 죽음 수용 저집단은 죽음 공포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 지각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죽음 수용 고집단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것과 관련해, 삶의 의미 지각의 하위 유형인 현재 의미 지각에서는 가설이 지지됐으나 또 다른 하위유형인 의미 추구에서는 죽음 수용과 죽음 공포의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죽음 수용의 주효과만 나타났다.

논 의

선행 연구 결과,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죽음 공포를 유도한 연구에서는 죽음 공포가 친 사회적 행동을 유도해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영향을 준다는, 죽음 공포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그러나 죽음 공포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즉, 죽음에 수용적이지 않은 사

람은 죽음에 대한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죽음 공포에 직면했을 때, 죽음 공포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 죽음 공포를 잘 다루고 이에, 죽음 공포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죽음 수용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수용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종속변인인 ‘삶의 의미 지각’과 삶의 의미의 하위 유형인 ‘의미 추구’에서는 죽음 공포 조건과 상관 없이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이 수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의미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 공포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더 추구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은 죽음 공포라는 존재의 위협이 없어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추구해 왔던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의미 추구’와는 달리, ‘현재 의미 지각’에서는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이 죽음 공포를 느낀 후 현재 삶의 의미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 수용 고집단이 죽음 공포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지각한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됐다.

이처럼 죽음 공포의 영향이 ‘삶의 의미 지각’과 ‘의미 추구’에 달리 영향을 미친 원인은 무엇일까? 정미영(2010)의 연구를 보면, ‘삶의 의미 지각’과 ‘의미 추구’는 ‘삶의 의미 지각’의 하위 변인이기는 하나 각각 구분되는 기능

과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의 긍정적인 기능과 효과는 대부분 '삶의 의미 지각'의 특징이며 '의미 추구'는 주관적인 안녕감과 행복감과 무관하고 오히려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장의 동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죽음 수용 고집단은 죽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공포라는 위협 상황에서 오히려 삶을 의미 있게 지각하면서 주관적인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미 지각'과 관련한 문항을 살펴봐도 5개 문항, 즉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만족할 만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내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역문항)'로 구성돼 있어서 참가자들이 현재 삶을 의미 있게 지각하는지 측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미추구와 관련한 문항에는 '나는 내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늘 찾고 있다',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로 구성돼 있어, 자기 성장의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그 특징 상, 죽는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처럼 앞으로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 공포는 지금의 삶이 의미 있다고 인지하도록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은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Wong, 1994)이기 때문에, 죽음 공포에 직면했을 때 주관적 안녕감이 저하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

다고 지각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죽음 수용 변인이 죽음 대처 효능감과 정적상관이 높았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은 죽음 대처 효능감이 높으며 죽음 공포를 효과적으로 다룰 힘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죽음 공포 시, 이를 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이 의미 있다고 지각하면서 죽음 공포에 대처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죽음의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만큼 죽음 공포가 앞으로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Wong(2008)은 자신의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삶의 에너지를 쓰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 수용은 좋은 삶을 사는데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접근적 수용과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간에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어서(김지현, 민경환, 2005),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은 죽음 공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연적인 죽음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Wong과 Tomer(2011)가 제시한 이중 체계 모델(dual system model)에 따르면, 사람은 접근 체계와 회피 체계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삶의 지향과 동기에 따라 접근적 경향성과 방어적 경향성을 갖는다. 방어적 경향성은 고통, 위협, 불안,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성으로 종종 안전과 자기 보호를 추구하는 방어적 기능을 한다. 방어적 기능은 긍정적으로는 개인에게 위협과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도록 이끌지만

부정적으로는 매우 소심하며 변화나 위협을 감수하는데 있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Wong과 Tomer는 방어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포와 높은 불안 수준을 경험하지만, 접근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인 경력이나 행복, 건강한 가족 같은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접근적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이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뤄야하며, 이를 다루지 않을 때는 삶의 목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을 사고하는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정서이지만, 이 정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의 여부에 따라 죽음 공포가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죽음 공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힘의 여부이다.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은 죽음 대처 효능감이 높아 죽음을 효과적으로 다룰 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공포 경험은 삶의 허무와 바쁜 일상의 무용(無用)을 경험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하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Wong & Tomer, 2011). 이와 관련하여, Wong(2008)은 죽음 공포에서 비롯된 깨달음이 개인에게 무력감을 주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실질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죽음에 수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죽음 공포를 경험할 경우 현재 삶의 의미 지각 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죽음에 수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

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그럼 삶의 의미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죽음 수용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있는가? 연구를 통해 개인적 특성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무교인보다는 종교인이 죽음 수용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 속에서 운동을 꾸준히 할수록 죽음 수용 수준이 높았다(배소심, 오진숙, 2007). 김지현,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죽음 수용과 종교성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된 부분이나 Klenow와 Bolin(1989)의 연구에서 접근적 수용이 종교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종교가 죽음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개인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죽음 수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생활 속의 운동은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죽음 공포를 느낀 사람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이는 곧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TMT의 주장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즉, TMT에서는 죽음 공포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보이고 이는 곧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지돼 왔다. 그러나 TMT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죽음 공포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참가자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변인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Vess, M., Routledge, C., Landau, M. J., & Arndt, J. 2009). 더불어 본 연구에서도 죽음 공포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추

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에 한해 현재 삶이 의미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는 죽음 수용 수준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죽음 수용의 중재효과를 알아본 첫 번째 연구이다. 그동안 죽음 연구가 주로 죽음 불안, 죽음 수용 각각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TMT에서는 죽음 연구 시, 죽음 수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TMT에서 사용했던 죽음 공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보고자 했다. TMT에서는 ‘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를 통해 죽음 공포를 유도했음에도 삶의 의미 변화를 죽음 공포의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삶의 회고 효과, 즉 죽음 공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게 되는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으며(Frankl, 1965; Reker, Peacock, & Wong, 1987; Reker & Wong, 1988; Wong, 1989), 그 결과 TMT에서 삶의 의미 변화를 죽음 공포의 방어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것과는 달리 죽음에 수용적인 사람이 보이는 긍정적 효과라는 다른 각도에서 삶의 의미 변화를 찾아보고자 시도했다.

셋째, 연구 대상의 확대이다. 죽음 연구라는 연구 주제가 갖는 특성상, 기존 연구들은 대

부분 노년층이나 환자층 또는 노년층과 청년층의 비교에 머물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발달 과정상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놓여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넷째, 본 연구는 죽음 불안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죽음 공포의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죽음공포와 죽음 수용이 삶의 의미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성했으며 실험 집단에 죽음공포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 정서인만큼 종속변인에 부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죽음 공포 외, 부정적 정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집단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죽음 수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추후연구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수용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성했으며 이들 중 실질적인 죽음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실험에서 제외했다. 즉, 1년 내에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실질적인 죽음 경험이 없는 대학생 중 죽음 수용 고, 저집단을 선발한 것이다. 여기에서 죽음 수용이 실질적인 죽음보다 철학적인 죽음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죽음 수용 고집단에 분류된 참가자들은 죽음 뿐 아니라 일상 생활 전반에서 수용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죽음 수용 뿐 아니

라 전반적인 수용적 태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성격 특질 등이 고려되지 않았던 바,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 특질이 죽음 공포와 수용, 삶의 의미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죽음 수용 고, 저집단의 삶의 의미 정도를 알아보면서 죽음 수용의 하위 척도 각각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알아 봤는데 그 결과, 중립적 수용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더 높게 지각함이 일관되게 나왔다. 이는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 회피적 수용 중 중립적 수용을 죽음에 대한 가장 성숙한 태도로 보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을 죽음 수용의 각 하위 변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상위 변인인 죽음 수용으로 한정해 실험해서, 기본적으로 죽음 수용 하위 변인 기준으로는 죽음 수용 고집단과 저집단 자료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죽음 수용 하위 변인을 중심으로 죽음 수용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성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에 최근 감명 깊게 본 TV내용이나 친구와의 만남, 감명 깊게 읽은 책 내용에 대한 느낌을 적도록 지시해, 보다 면밀하게 죽음 공포와 죽음 불안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죽음 공포와 막연한 죽음 불안과의 차이를 시나리오를 통해 유도할 수 있다면 죽음 불안과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주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죽음을 막연히 사고하는 것과 명확히 사고하는 것의 차이점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죽음 사고의 이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정 종교 재단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도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죽음 수용의 경우 남녀 차이가 존재함이 선행연구에서 지지되고 있어(김지현, 민경환, 2005), 성별 비율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던 바,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 다양한 집단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경아, 이경순 (2006). 죽음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3(3), 169-180.

김지현, 민경환 (2005). 청년 집단의 죽음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1-36.

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의 원천, 구조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개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2), 199-224

박지선, 최인철 (2002).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훌륭한 시민으로 만드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75-89.

배소심, 오진숙 (2007). 생활무용참가와 웰니스 및 죽음 수용 태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15, 1-16.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운영, 김지환 (2008). Wong의 죽음태도 척도의 타당화.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이흥표, 이흥석, 고효진, 김교현 (2005). 다차원적 죽음 불안의 타당화 및 비교문화적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95-413
- 장휘숙 (2000).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27-143.
- 장휘숙, 최영임 (2008).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59-76.
- 정미영 (2010). 삶의 의미의 두 요인에 관한 연구: 의미 추구와 의미 발견의 기능과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153-180
- 한미정, 최정윤 (2000).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 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학회, 11(2), 167-181.
- Amenta, M. M. (1984). Death anxiety. Purpose in life and duration of service in hospice volunteers. *Psychological Reports* 54.
- Arndt, J.,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Schimel, J. (1999). Creativity and terror management: Evidence that creative activity increases guilt and social projection following mortal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9-32.
- Armstrong, D. (1987). Silence and truth in death and dying.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651-657.
-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 409-427.
- Be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 Bonanno, G. A. (2009). *The other side of sadness: What the new science of bereavement tells us about life after loss*. New York: Basic Books.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 65-76.
- Butler, R. N. (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Manual of instructions for purpose in life test*. Lafayette, IN: Psychometric Affiliates.
- Debats, D. L., Drost, J., & Hanso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 359-374
- Debats, D. L., van der Lubbe, P. M., & Wezeman, F. R. A. (1993). On the life regard index (LRI): A measure of meaningful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337-345.
- Drolet, J. L. (1990). Transcending death during early adulthood: Symbolic immortality, death anxiety, and purpose in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148-160.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Frankl, V. E. (1965). *The doctor and the soul*. New York: Knopf.

- Frankl, V. E. (1967). 심리요법과 현대인. 이봉우 역(1979). 왜관: 분도 출판사.
- Frankl, V. E. (1969).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이현수 역(1983). 서울: 양영사.
- Feifel, H., & Branscomb, A. B. (1973). Who's afraid of dea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1, 282-288.
- Gailliot, M., Schmeichel, B., & Baumeister, R. (2006). Self-regulatory processes defend against the threat of death: Effects of self-control depletion and trait self-control on thoughts and fears of d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49-62.
-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Rosenblatt, A., Veeder, M., Kirkland, S., & Lyon, D.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08-318.
- Greenberg, J., Simon, L., Pyszczynski, T., Solomon, S., & Chatel, D. (1992). Terror management and tolerance: Does mortality salience always intensify negative reactions to others who threaten one's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12-220.
- Harlow, L. L., Newcomb, M. D., & Bentler, P. 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5-21.
- Harmon-Jones, E., Simon, L., Pyszczynski, T., Solomon, S., & McGregor, H. (1997).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self-esteem: Evidence that increased self-esteem reduces mortality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4-36.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96-999.
- Klenow, D. J., & Bolin, R. C. (1989). Belief in an afterlife: A national survey. *Omega*, 20, 63-74.
- Klug, L., & Sinha, A. (1987). Death acceptance: A two-component formulation and scale. *Omega*, 18, 229-235.
- Mascaro, N., Rosen, D. H., & Morey, L. C. (2004). The development, construct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of the spiritual meaning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845-860.
- Quinn, P. K., & Reznikoff, M.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time in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1, 197-209.
- Ray, J. J., & Najman, J. (1974).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A preliminary approach. *Omega*, 5, 311-315.
- Reker, G. T. (1977). The Purpose in life test in an inmate popul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Reker, G. T., Peacock, E. J., & Wong, P. T. P. (1987). Meaning and purpose in life and well-being. A life-span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y*, 42, 44-49.
- Reker, G. T., & Wong, P. T. P. (1988). Aging as an individual process: Towards a theory of personal meaning. In J. E. Birren, & V. L.

- Bengtson (Eds.), *Emergent theories of aging* (pp. 214-246). New York: Springer.
- Rosenblatt, A.,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Lyon, D. (1989).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1.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violate or uphold cultur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81-690.
- Ryff, C. D., Singer, B. H.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 1-28.
- Saunders, C., & Baines, M. (1983). *Living with dy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 L., Arndt, J., Greenberg, J., Solomon, S., & Pyszczynski, T. (1998). Terror management and meaning: Evidence that the opportunity to defend the worldview in response to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the meaningfulness of life in the mildly depressed. *Journal of Personality, 66*, 359-382.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80-93.
- Tomer, A. (1994). Death anxiety in adult life: Theoretical perspectives.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pp. 3-2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Vess, M., Routledge, C., Landau, M. J., & Arndt, J. (2009). The dynamics of death and meaning: The effects of death-relevant cognitions and personal need for structure on perceptions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728-74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hite, W., & Handal, P. J. (1990-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mental health/distress. *Omega, 22*, 13-24.
- Wong, P. T. P. (2008). Meaning management theory and death acceptance. In A. Tomer, G. T. Eliason, & P. T. P. Wong (Eds.) *Existential and spiritual issues in death attitudes*. (pp. 65-8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ong, P. T. P., Recker, G. T., & Gr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pp.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Wong, P. T. P., & Tomer, A. (2011). Beyond terror and denial: The positive of death acceptance. *Death Studies, 35*, 99-106.
- Wong, P. T. P., & Watt, L. (1991). What types of reminiscence are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6*, 272-279.
- Yalom, I. D. (2008). Staring at the sun: Overcoming the terror of death.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6*, 283-297.

1차원고접수 : 2013. 09. 30.

수정원고접수 : 2014. 01. 11.

최종게재결정 : 2014. 02. 26.

The Differential Effects of Death Fear on the Meaning Perceptions in Life by Death Acceptance Levels

Hee-Sun Nam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death fear on the meaning perceptions in life by death acceptance levels. A total of 442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were screened with 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DAP-R). According to their DAP-R scores, students who scored within the 15% were selected for death acceptance high group(n=50) and students within the lower 15% were selected for death acceptance low group(n=48). For investigat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death fear on the meaning perceptions in life by death acceptance levels, subjects performed an essay task under death fear condition or control condition. In result, death acceptance high group is more perceptible in the search for meaning and meaning perceptions in life than death acceptance low group. and death acceptance high group is more perceptible in the presence subscale than death acceptance low group after death fear. Bu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eath acceptance low groups in the presence subscale after death fear.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several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eath fear, death acceptance, meaning perception of life, meaning perception of presence